



준비와 목탁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위덕대, 와세다대와 치매 연구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2009 월드컵이 스포츠를 넘어(WBC)이 열마진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결승에서 속저 한국과 일본이 맞수대결을 펼쳐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본의 비신사적 행위로 다소 문제를 야기하며 경기는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한국팬들은 좋은 경기를 보여준 한국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것은 비단 야구 뿐만이 아니다. 축구는 물론이고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아사다 마오 선수까지 양국의 대결은 각국 국민들에게 '자존심 싸움'에 가깝다. 이는 인신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쌓인 반일감정까지 더해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교계 한 종파가 국가·이념을 초월한 자비행을 위해 일본 유명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각종립 위덕대(총장 배도순)는 3월 20일 경주시보건소에서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협약식을 갖고 '노화에 따른 치매 예방을 위한 현미담백제조 및 칩기 트레이닝효과에 관한 중점연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위덕대 이상직 교수(사회체육학부)가 일본과 연구협정을 맺고, 경주시보건소의 협

력을 받아 2009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년간 진행하는 대형프로젝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던 치매관련 사업·정책은 예방보다는 사후관리와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이번 연구는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최종결과를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위덕대가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경주시보건소가 선별한 65세 이상 고령자 70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돼 지역포교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과정에 일본노인들의 교류차원 한국관광도 포함돼 있어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치매는 환자 1인당 연간 8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개인·국가적 경제 손실이 우려돼오던 질병이다. 더욱이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으로, 각 가정의 경제도 힘을 잃어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위협적이다.

"중생들의 온갖 질병을 다 없애고 몸과 마음이 안락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도록 서원한다"는 약사여래부처님의 대원이 합동 연구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포교 산실 전법회관 '개관'

조계종 중앙신도회 4월 8일 개관식 예정

조계종 전국신도회(중앙신도회 전신)가 결성된 것은 1955년. 재가자들은 강한 신심으로 범불교적 사회운동을 펼치며 부처님오신날을 제정하는 등 불교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하지만 포교·신도단체들의 사무 및 공동회의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해 신도들은 활동 공간 마련을 오래도록 염원해 왔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신도단체들의 보급자 리이자 포교의 산실이 될 전법회관이 착공 2년 만에 건립을 마치고 개관식을 갖는다.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번지에 건립된 조계종 전법회관이 4월 8일 개관식을 봉행한다.

4월 8일 오후 2시 개관식은 오전 9시 20분 안택기도를 시작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치사, 김의정 중앙신도회장과 김충용 종로구청장의 축사, 표창배 전담, 테이프 컷팅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제막식이 이어 중앙신도회 부설법인 (사)날마다 좋은날 불교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어' (단장 구자선) 치과전문병원

'연우치과' 개원식이 함께 진행된다.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번지에 소재한 전법회관은 1050여 평에 이르는 지상 9층, 지하 3층 규모로 앞으로

포교 1번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법회관은 건물 주변부지 매입과 문화재 심의 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6년 '전법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7년 8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2008년 5월 상량식을 개최했다. 이어 2008년 11월 사용 승인을 받고 12월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부설기관과 소속단체, 복지재단 등 총 21개 단체가 입주했다. 특히 62억원이 투입된 신도회관의 건립은 사부대중의 순수 원력이 이뤄낸 것이라 의미가 깊다.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조계종 신행·포교단체와 사회복지재단 등이 한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재가신도중심의 결집공간으로 의미가 크다"며 "각 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통합으로 생활불교운동의 출발을 앞당기고 동시에 사회의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 기대했다.

글=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동국의 혼불 살려 위상 세우자"

東大 정각원장 법타 스님 취임법회

동국대 정각원장 이·취임법회가 3월 24일 정각원에서 봉행됐다.



3월 24일 열린 동국대 정각원장 이·취임법회에서 신임 정각원장 법타 스님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법문하는 모습.

이날 행사에는 한진수 부총장을 비롯해 중호 스님(前 정각원장), 혜원 스님(불교대학·불교대학원장) 등 교수 및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원장 법타 스님은 "동국

대는 조계종과 한집안 살림이다. 지학·자조하지 말고 동국의 혼불을 살려 명문사학 동국대의 위상을 바로 세우자"고 말했다.

한편, 법타 스님은 1946년 충남 청주에서 출생해 1974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다. 조동섭 기자

"서암 종정스님 복권돼야"

원두 스님 3월 23일 성명서 발표

"종단 화합 차원에서 서암 종정스님은 명실 공히 복권돼야 한다."



前 조계종 종정 서암종정 스님.

3월 20일 폐회된 조계종 제180회 임시 중앙 총회에 상정됐던 '2009년도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은 의사일정상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밀운 스님 등 조계종 원로스님들이 결별자 사면 복권 등을 청원한 것은 화합을 우선시한 종단 내 여론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와 관련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종정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원두 스님은 3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암 종정스님의 복권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작년에도 성명서를 발표했던 스님은 한층 격양된 목소리로 서암 종정의 복권을 주장했다.

스님은 성명서에서 "석존의 법·율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발표한 서암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불초에 대한 불신임이자 불경"이며 "원로회의 불신임이 없었음에도 승려대중에게 '원로회의 중정불신임에 동의합니까'라고 묻는 것은 승려대중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원두 스님은 "당시 원로회의에서 서암 종정이 불신임되지 않았다"면서 "조계종 원로회의는 사면복권 당위성을 분명히 하고, 1994년 종단 개혁의 와중에서 위법하게 치달린 승려들의 원상회복 청원서(2008년 5월 15일 제출)에 공식적으로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균종교구 균승 안거 24~26일 2박3일 동안 인제 백담사 만해마사에서 육·해·공군 균승 전원이 참석한 균승 안거를 봉행했다. 110여 군승들은 포살법회를 비롯해 △간화선 및 장병수행 프로그램착 △포교사례 발표 및 토론 등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현수 정사·법안정 전수 체탈도첩

진각종 종의회(의장 성초)는 3월 23일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6회 임시종의회 및 사업위원회 협동회의를 개최했다.

제직의원 37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현수 정사와 법안정 전수의 체탈도첩 징계처분 의안을 심의하고, 찬성 31표·반대 3표·무효 2표로 체탈도첩을 확정·의결했다. 현수 정사와

법안정 전수는 세 차례에 걸친 인사 불복과 종무행정 비방행위 등으로 2008년 10월 13일 강규행계 7급 2호와 공권징치 10년을 징계 받은 바 있다. 징계의 확정 및 효력발생은 도헌 종인의 재가를 얻는 즉시 확정된다.

한편, 종의회는 1월 2일 열반에 든 일지행 전수의 선사록 등재도 의결했다. 김진성 기자

자연공원법 개정안 실무소위 구성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 3차 회의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위원장 정지)는 3월 25일 3차회의를 개최하고 자연공원법 개정안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 정지 스님을 비롯해 정념(재무부장), 세영(사회부장), 수경(문

화부장), 현응, 혜오, 계호 스님과 추진실무팀이 참석한 이날 3차회의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법안 스님, 이병인 교수, 김재일 소장을 추진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노덕현 기자

현수 스님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교수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는 '자연공원법'이 사찰 수행환경과 종단 권리를 침해·규제하는 내용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는 "정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지 불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 진행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영험한 돌미륵 남해 미륵암 - 대응전 중창불사를 위한 만등불사



귀의 삼보하옵고,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미륵암(주지 청운)은 한 사찰로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녕과 염원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과 원력으로 미륵암을 창건하였으나, 정성이 부족하여 아직도 부처님의 도량이 중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시봉하는 소승이 부끄러운 마음을 모아 대응전 중창의 대원력을 발휘하고 많은 신심있는 불자님들의 염원 동참을 기원하면서 일인 일등 만등불사의 뜻을 높이 들겠습니다. 불가의 중수 중창은 불보살님이 가피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절 인연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부대중의 지극한 신심이 있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정진의 노력으로 미륵암의 중창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일인 일등으로 만등의 등불을 밝혀 법계 광명하기를 기원하며, 빈자일등의 행을 지어 청정한 마음으로 지혜의 광명 얻으시길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광명의 등, 용서의 등, 관심의 등, 쾌유의 등, 성취의 등, 왕생극락의 등, 애정의 등, 인연의 등으로 함께 하소서...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합장

만등불사 발원문

"원하옵나니 불사에 동참한 불자는 병마의 고통이 여의어지이다. 지해가 무궁 하여지이다. 자손이 효순하며 번창 하여지이다. 첩화가 순수하며 회향이 바르게 되어지이다. 날 적마다 부처님의 법 여의지 아니 하여지이다. 원하는 바가 부처님과 같이 되어지이다. 구경에 성불하여 위 없는 행복을 누리지이다."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사이보사 석가모니불.

미륵암의 돌미륵

지금도 방조어부림(방조리)과 방조제로 인해 남해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친 풍해를 이겨냈지만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의 평안을 빌고자하는 의식은 예로부터 여전히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은 단지 바다를 상대로 하는 절대 의식에서 발전하여 개인의 안녕과 발전을 염원하는 물건리 토속 신앙의 대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토속신앙의 대상이 바로 물건리 미륵암에 모셔져 있는 돌미륵인 것입니다.

미륵암 주지 청운스님은 물건리 바다 한가운데서 현재의 미륵암으로 광명이 발현하는 두 번의 선공을 받은 후 돌선 한구처에 잡들어 있던 돌미륵을 찾아 미륵암 현위처로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계시대로 돌미륵을 모신 후 정성껏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어업자의 만선과 물건마을의 대소 악재는 씻긴 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물건리는 물론 삼동면 골골 흘러나가는 지금은 누구나가 염원에 대한 기도처로서 인



신하게 되었고, 그 소원성취 또한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돌미륵은 그 영험함을 나누어 어업자를 위한 미륵, 사업자를 위한 미륵, 학업자를 위한 미륵으로 남해군민 불자 및 물건마을 불자들의 항상 성불을 이루는 영험한 미륵으로 신앙심으로 높으며, 누구나 꼭 한 가지 소원은 성취하게 하는 미륵보살로 그 영험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험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돌미륵에 대한 기도는 물론이요 적절한 관리와 보존이 우선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륵암 돌미륵의 지방문화재 지정은 물건리는 물론 삼동면 주민들의 안녕과 염원처로서의 정신적 귀의처를 확인하는 절차임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불사내역

- 미륵암 한평 내 땅 갖기(개인법인설립위원의 지력)
- 만등불사
- 기동불사, 용머리, 부연, 주춧돌, 후불탱화, 덧집, 천불상, 대들보, 상원대, 도리랭이, 도리, 석가대, 부처님 법단, 법당문, 기와
- 미륵 지방문화재 등록 중
- 금강경, 반야심경, 달마도 등등 각종 액자, 병풍 전시 판매
- 보살계 봉행, 신도증 발급(4.8까지 접수, 사진1매)



미륵암 주지 청운 합장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물건리 방조어부림 앞)
계좌번호 : 하니은행 511-910006-06204 / 농협 : 831075-51-023041 (예금주 : 미륵암)
중무소 : (055)867-0776, 2259 / fax (055)867-8009

미륵암의 신비하고 영험한 미륵보살의 원력을 체험하러 오세요!!